



日本第一の  
逢いのまち、  
渋谷駅前交差点の景。

ai  
し  
は  
逢

2021. 下半期

아이

# CONTENTS

## KOI 하반기 활동

2021 코이 이슈, 〈웃세와〉 .....	2
객원 필진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 .....	7
-코이 섭외팀 인터뷰-	

## 일문과 소식

꿈으로 더 한 걸음 .....	11
-일본 국비 유학생 인터뷰-	
인문을 나누는, 일문인의 가을 .....	16
2021 일본어 기초 강화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	25

## 부록

편집후기 .....	31
------------	----

코

이 **無** **の** **し** **め**

/

하

반

기

/

화

매

주

2021. 下半年



# 2021 코이 이슈, <웃세와>

글 이 성

##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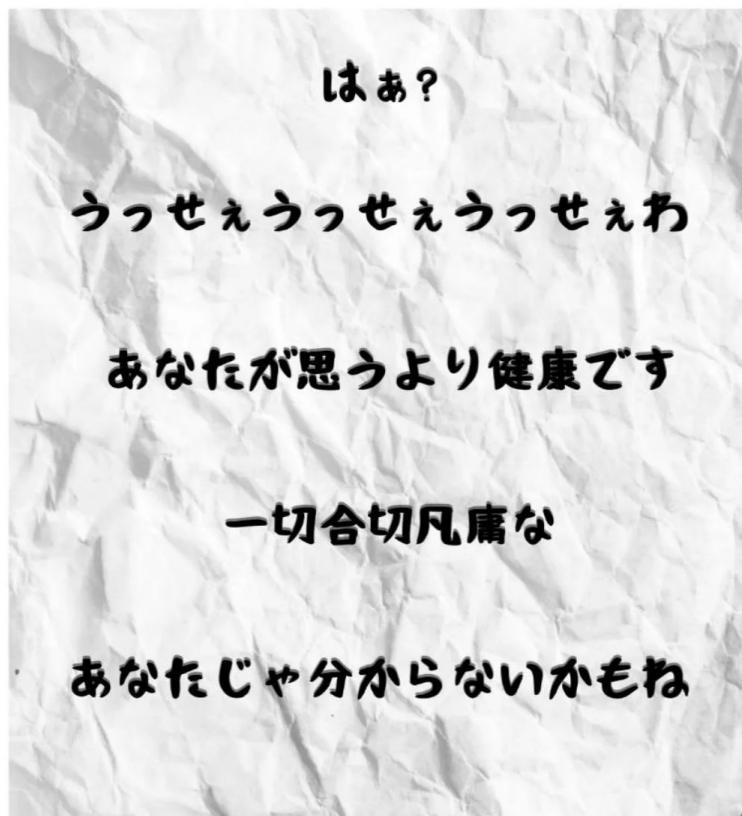
<웃세와(うっせえわ)>는 우타이테(歌手, 보컬로이드 음악이나 자작곡 등을 직접 불러서 인터넷 상에 투고하는 가수)로 활동하던 일본의 가수인 Ado가 2020년 10월 23일에 발매한 곡으로, 시끄럽다는 뜻의 'うるさい'(우루사이)를 거들먹거리듯 부르는 말이다.

Ado는 2017년 1월 10일 '니코니코동화'(ニコニコ動画)라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보컬로이드 곡을 투고하며 우타이테로서 활동을 개시했다.



2018년부터는 유튜브에도 투고하여 활동폭을 넓혔고, 이후 2020년 10월 23일 메이저 데뷔곡으로 <웃세와>를 발매하며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노래 <웃세와>는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젊은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얼마 안 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회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웹진 코이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웃세와>를 2021년 이슈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웃세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인지 살펴보고, 본 곡을 해석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 일본 사회의 투사체로서의 웃세와

우리는 가사를 분석하면서 화자, 즉 일본의 젊은 세대가 어떤 이유에서 이 노래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전의 '질풍노도의 시기'로 규정되던 청소년 세대는 이제 '중2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사춘기 시기의 청소년들의 행동을 마치 병적인 것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사회와 청소년 사이의 관계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바라보았다.

## 청소년 疾風怒濤

## 중2병

### 사춘기 세대갈등

또한 <웃세와>에서는 흔히 '술자리 예절', '막내(사내 연소자)가 할 일', '열정페이' 등으로 설명되는 손윗사람의 연소자 차별, 즉 세대갈등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노래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웃세와>는 현 시대의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으며, 사회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그들이 처한 환경 그리고 편견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본다.

# <웃세와>와 2차 창작

그리고 우리는 <웃세와>의 뮤직비디오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창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의 강국인 만큼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각자만의 목소리와 특징이 뚜렷하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웃세와>의 가사와 멜로디를 반영해 2차 창작물을 만들어내면서, <웃세와>가 대중화되었다. 따라서 <웃세와>는 원작 그대로 유명세를 얻은 것도 있지만, 2차 창작자가 일종의 바이럴 마케터로서 <웃세와>의 파급력을 높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로 <그림2>을 소개해보려 한다.

왼쪽은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進撃の巨人)에서 가장 대중적인 캐릭터인 ‘리바이’(リヴァイ)를 성대모사 해서 만든 2차 창작물이다. 이 캐릭터가 결벽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살려, 하이라이트 부분 가사를 “닦아 닦아 더럽잖아”(ふきてえ ふきてえ きたねえわ)라고 개사한 것이 특징이다. 오른쪽은 ‘짱구’(しんのすけ)를 성대모사 해서 만든 2차 창작물이다. 캐릭터 특유의 늘어뜨리는 말투를 섞어서 유쾌하고 독창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렇듯 밈(meme)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향유자에게까지 <웃세와>를 전파함으로써 대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리바이’ 버전의 웃세와(좌)와 ‘짱구’ 버전의 웃세와(우)  
| 출처: 유튜브



# PV에서의 ‘止め絵’와 ‘타이포그래피’

〈웃세와〉는 일본의 유명 기업인 메이세이식품(明星食品)의 CM송으로도 사용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노래나 가사 자체도 주목받지만,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주는 ‘PV’도 〈웃세와〉의 인기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PV란 ‘promotional video’의 약자로, ‘멈춘 그림’(止め絵)와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의 조합으로 영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우타이테 계열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에는 주로 부동(不動)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하고, 가사를 줄지어 띄우는 〈그림4〉와 같은 PV 구성이 주로 사용된다.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를 이용한 디자인의 한 종류이다. 창작물에서는 음악의 콘셉트에 어울리는 타이포그래피를 띄움으로써, 시청자가 곡의 가사를 쉽게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동시에 곡의 분위기를 가시화하고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止め絵(토메에, 멈춘 그림)란, 2D 애니메이션에서 한 장의 그림을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한다. 창작물에 사용되는 캐릭터의 모습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가만히 시청자에게 내비침으로써,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가사가 전달되는 동안 캐릭터의 내면을 헤아릴 틈을 준다.

〈그림1〉의 앨범 아트만 봐도 알 수 있듯, 〈웃세와〉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분노에 가득 차 있다. 더불어 영상의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이 캐릭터는 틀에 박힌 체제에 화가 난 사회인들의 대변자로서 분노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웃세와는 걱정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이러한 PV 구성을 통해서 더욱 파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에게 쉬이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긴 것이다.



출처 | 메이세이식품(明星食品)의 컵라면 CM



Chinozo의 ‘グッバイ宣言’ 출처: 유튜브

止 元 有

# 나가며

이상 '웃세와'가 유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탐구해 보았다. 일본에서 <웃세와>가 유행한 것은 한국에서 각자의 개성을 억압하는 기성세대를 '꼰대'라 일컫는 신조어가 굳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세대갈등 그리고 사회와 청소년 세대 사이 관계 단절이라는 현상에서 기인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대중들에게 공유되는 과정까지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 일본 사회를 탐구해보았다. 나아가 어떤 사회에서 무엇이 유행하고 있는가를 통해 일본 사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2021 코이 이슈, <웃세와>와 관련된 다양한 글은 웹진 코이 공식 홈페이지([koi.inu.ac.kr](http://koi.inu.ac.kr))에서 만날 수 있다.



Ado의 'うっせえわ' | 출처: 유튜브

# 객원 필진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

-웹진 코이 섭외팀 인터뷰-

글 최영



## 양산형 애니메이션

1. 양산형 애니란 무엇인가? 양산이란 것은 양산이 되는 대상 즉, 표준..

2021.12.14

© 코이 공식 홈페이지

## 일본음악 좋아하세요?

### 일본음악 좋아하세요?

J-POP을 즐겨온 지도 어언 20년이 되어가지만,  
요즘처럼 "일본음악 왜 듣..

2021.12.14

지난 12월, 코이 홈페이지에 <일본음악 좋아하세요?>와 <양산형 애니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두 개의 칼럼이 게시되었다.

<일본음악 좋아하세요?>는 대중음악평론가이자 대중음악웹진 IZM의 필자인 황선업님의 현재 J-POP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리고 Youtube에서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을 운영 중인 단지널님의 <양산형 애니메이션>은 제목 그대로 일본의 양산형 애니메이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식지 아이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웹진 코이의 섭외팀의 김에스라 학우(일어일문학과 19학번)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이의 섭외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 웹진 코이에 외부 필진의 글을 신고자 구성된 코이 섭외팀입니다. 원래는 필진 섭외와 더불어 전문가 특강도 진행하려고 준비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필진 섭외만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Q. 얼마 전 코이 홈페이지에 대중음악평론가 이신 황선업 님과 애니메이션 리뷰 유튜버인 단지널 님의 칼럼이 게시되었는데요, 두 분을 섭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처음 기획단계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웹진 코이는 대체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관한 깊이 있는 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해당 분야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입장에서 글을 읽기에 그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는 더 많은 분야와 작품이 존재하기에 코이에서도 개인의 관심사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를 다뤄 보고자 했습니다. 그중 J-POP과 양산형 애니메이션이라는 주제를 선정했고, 주제에 대한 계보와 현재를 넓게 조망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Q. 섭외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또 섭외 과정에서 어려웠던 혹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나요?

A. 사실 컨택보다는 필진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코이와 맞는 주제를 다루는 분들을 찾기 위해 팀원들이 각자 여러 웹진을 읽거나 유튜브 채널 등을 탐색하면서 컨택을 진행했는데요. 일본과 서브컬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정보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웹진도 알게 되고, 글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학과 조교님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인터뷰어는 단지널 님의 “스트리밍, 알고리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본인 취향의 작품을 접하기 쉬워졌다. 이건 나의 취향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의미이다.”라는 부분을 읽으며, 많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있음에도 실제로 시청하는 작품은 몇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양산형 애니메이션> 글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혹시 섭외팀 분들 또한 두 분의 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있었나요?

A. 황선업 평론가님의 글에서도 ‘취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선 “결국 각자가 자신의 취향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위문화의 토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기에.”라고 말하면서 서브컬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J-POP을 포함한 일본문화 전반이 여전히 하위문화로써 위치하고 있으나, “좋은 것만 보기에 모자란 시간”이니 각자의 취향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서브컬처를 다루는 저희 웹진 KOI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하위문화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Q. 섭외팀 활동 중에 아쉬웠던 점은 있으신가요?

A. 사실 처음 컨택을 시작한 게 8월이었어요. 필진 섭외와 더불어 특강을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는데, 상황도 상황이고 학교 방침상 오프라인 특강 진행이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종강을 맞이하게 됐네요. 특강도 J-POP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어서 실제로 진행했으면 학우분들께 더 신선하고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Q. 일 년 동안의 섭외팀 활동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섭외를 처음 진행하는 거라 막막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느새 마무리 짓는 단계라 신기하기도 합니다. 섭외 규모가 작아 팀을 적은 인원만으로 구성했는데 내년에는 더 재밌는 기획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섭외팀이 진행한 코이 객원 필진의 칼럼은 코이 공식 홈페이지([koi.inu.ac.kr](http://koi.inu.ac.kr))에서 만날 수 있다.

일  
문  
과  
/  
소  
식



2021. 下半期



# 꿈으로 더 한 걸음,

-일본 국비 유학생 인터뷰  
일어일문학과 17학번 진 은

글 최 영



© Photo by Altaf Shah from Pexels

2021년 가을, <아이>는 올해 일본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유학생에 선발된 일어일문학과 진예은 학우(17학번)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2년 전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그는 교수님의 제의로 다시 유학 생활에 도전하였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

**유학의 목적,  
일본의 관점과 언어로  
일본의 서브컬처 바라보기.**

## 근황과 소감, 그리고 이유

안녕하세요, 진예은 학우님, 소식지 <아이>입니다. 유학에 관한 질문에 앞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묻고 싶습니다. 10월 이후로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국비 유학생에 선발되신 당시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매주 열심히 수업 듣고, 과제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일본에 입국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 19의 영향이 강하다 보니 입국이 쉽지 않네요. 현재 사이타마 대학교의 일본문화 연수생 교양학부에 속한 상태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국비 유학 시험의 난제는 1차 필기시험이었기에 전 애초에 제가 필기시험에 합격하리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수강료를 결제한 날 조교님으로부터 1차 시험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수강을 취소한 기억이 납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죠. 면접 후 최종 사이타마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그래도 면접 때 실수는 안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결과가 늦게 나와서 부모님, 교수님 등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가슴 졸여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하시고자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문화와 언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일본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았기에,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본의 관점과 언어로 일본이 자국의 서브컬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싶어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교환학생 당시 이미 겪어본 것 같아요.**

**유학 동안 어떻게 지내실지 학우님의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힘들었던 건 교환학생 당시 다 겪어본 것 같아 이번 국비 유학에서는 혼자 가더라도 핫카이도든 오키나와든 여행을 열심히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출국이 예정보다 한참 늦은 1월 초이기에,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외국어 실력을 연마하고 일본 문화를 공부하며 숨 가쁘게 일본 취업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유학의 길이 아닌 특별히 일본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유학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다른 유학의 길이라고 하면 저에겐 인천대학교 주관의 교환학생이 떠오르네요.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다시 국비 유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교환학생 생활은 저 자신에겐 아쉬움이 많이 남은 유학이었는데, 일본 생활에 대한 미련이 느껴질 때 교수님의 권유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환학생 경험이 완전 헛된 것은 아니었고, 회화나 필기시험 등 일본어 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일본 정부 주관 국비 유학

국비 지원의 범위가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혹시 따로 개인이 따로 부담할 비용이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입국 시의 지정 호텔 격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입국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큰 편입니다. 지정 호텔 격리 비용이 총 16만 엔 정도인데, 국비 지원금이 10만 엔 (한 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호텔 격리 비용 일부와 더불어 기숙사 비용+보증금과 생활비 전반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학우님께서서는 사이타마 대학에서 공부 중이신데, 유학 가능한 지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나요?

매회 후보 대학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 도쿄 외에도 오사카 대학, 교토 대학 등 각 지역의 내로라하는 명문 국립, 사립대들이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학이 더 자유로워지리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재 유학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국비 유학생의 입국 또한 내년 1월로 미뤄지는 실정이기에 입국 면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재류 자격을 인정받은 일반 유학생조차 내년 3월쯤에나 입국이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 입국자가 많이 밀린 상태이기에,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세계적으로 진정되어 일본이 전면 개방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 국내외 학교생활

국비 유학의 경우,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한국 대학(인천대)의 학부 과정에도 포함되나요?

휴학 후 일본 대학 학생으로서 다녀오기에, 유학 기간 중 소속 한국 대학교에서는 휴학생으로 인정됩니다.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관심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교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일본 대학에서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사이타마 대학교 교양학부에 속하여 일본어, 일본 사회 문화와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 전통문화에 대한 수업, 한일 관계에 대한 수업도 있으며, 미디어 속의 일본어와 해외 시청자의 수용, 일본 미술사에 대한 수업 등을 수강 중입니다.

인천대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유학을 고려해 볼 만한가요?

평점 3.5점 정도라면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교수님의 추천과 더불어 일본어 실력이 관건이 되기에 성적이 아주 큰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 공부 방법

**학우님의 개인 공부 방법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국비 유학 시험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원이나 학습 프로그램, 또는 교재가 있나요?**

문제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관련 학원, 학습 프로그램, 교재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JLPT 1급 어휘, 문법, 독해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무난하게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도 JLPT 2급~1급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시험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시험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나요?**

필기시험 전에 JLPT 1급을 취득한 상태였기에, 한 달쯤 전부터 주요 문법과 어휘를 체크하고 독해 문제 50문 정도를 풀며 감각 정도만 되살렸습니다.

**일본어 실력 외에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능력이 있나요?**

후보 대학 중 일부는 토익 시험 점수를 요구하기에 토익 등의 영어 시험 점수, 영어 실력을 쌓아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휘나 독해, 회화는 어떻게 공부해 오셨나요? 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자를 읽고 쓰는 실력이 N3 이하였을 때는, 공부 중인 교재(어휘, 문법,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부 노트에 적어 지하철로 이동할 때 등 틈이 날 때마다 외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휘 실력이 N2 정도 되었을 때는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지 않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일본 원서를 사서 읽으면서 읽는 재미를 붙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독해 문제를 쌓아 놓고 풀면서 독해 요령을 잡아갔습니다.

회화의 경우 학과 내 회화 수업을 통해 간단한 일상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유학 중 특정 주제에 대해 원어로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습한 것 같습니다. 회화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유학 후 향후 계획서를 일본어로 숙지하여 관련 분야에 대해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현지 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 어려운 전문 용어나 숙어까지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 준비 시에는 원어민 교수님께서 정말 면밀하게 도와주시므로, 1학년 때부터 회화 수업을 들어오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오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Study in JAPAN for AFRICA\_Saitama University

면접시험이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셨고 본인 만의 긴장 해소 방법이 있나요?

면접 준비는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습계획서, 유학 후 향후 계획서에 대한 예상 질문을 도출해주시는데요, 그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내리고 이 답을 숙지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입에 붙지 않는 단어들은 최대한 사용을 지양했습니다. ('확대'라는 말의 일본어를 외워서 말해야 하는 경우, '커지다' 등 되도록 쉬운 표현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면접 시 당연하게도 예상 질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스스로의 진로 방향과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 정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이야기까지 체화하여 '내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먹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면접관이 저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생각하며 긴장을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렇게 자기 자랑, 자기 계획 마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완벽한 일본어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 원어민이 아니기에 완벽한 문법을 구사할 수는 없으니, 표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자고 마음먹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면접관분들이 정말 이야기를 잘 들어 주셔서, 있던 긴장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의 진로

유학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교환학생 유학이 저에겐 만족스럽지 못한 유학이었기에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한 번 일본 생활을 해본 만큼, 이번엔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잘 걸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여쭙보고 싶은데요, 유학을 다녀오신 이후의 진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일본 취업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직장을 갖게 되면, 일시 입국 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졸업 후에 일본에 재입국할 예정입니다.

진예은 학우의 가감 없는 진솔한 인터뷰는 유학을 준비하는 일문과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의 국비 유학생 선발 후기 소감 또한 일어일문학과 학생 게시판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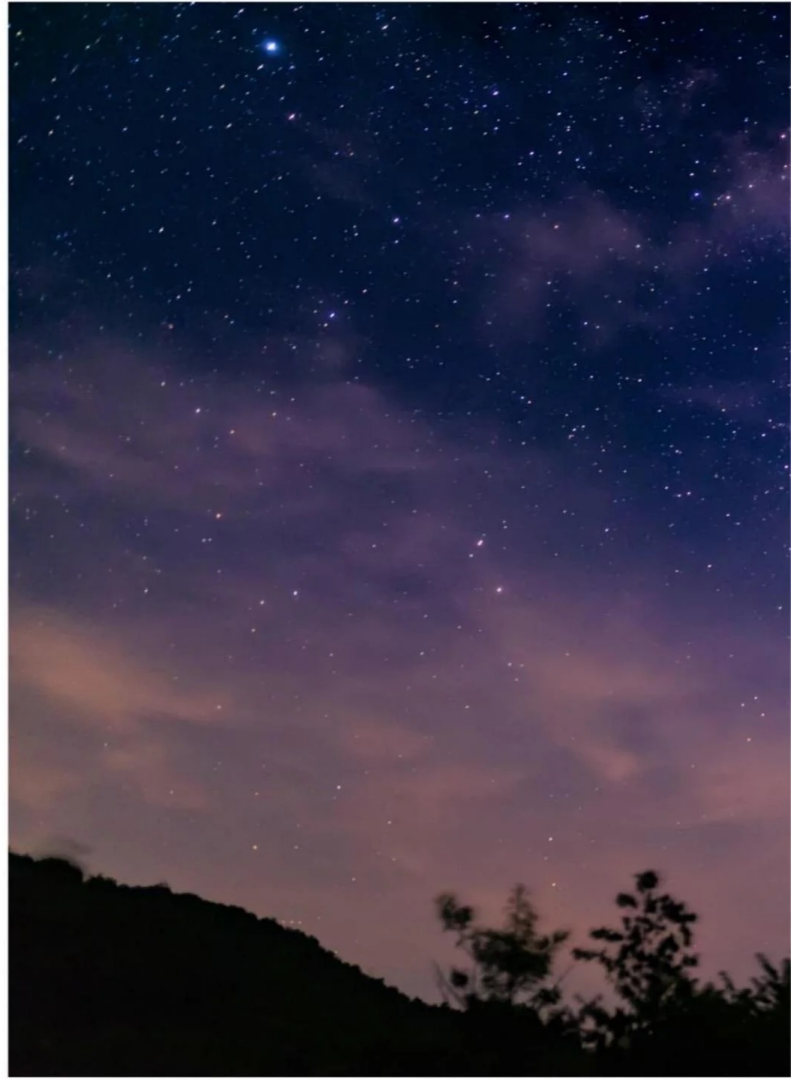
**만족스럽지 못했던  
교환학생 유학,  
이번 기회를 통해  
꿋꿋이 걸어가려 합니다.**



일어일문학과 17학번 진 예은

# 인문을 나누는, 일문인의 가을

글 김 서



코끝이 시려 오기 시작하는 11월,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서는 제14회 일문인의 밤 행사와 학생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기존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대면 행사 못지 않은 알찬 구성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일문인의 밤 행사에서는 ‘전공수업 우수과제 시상 및 발표’와 ‘일본지역문화학 서평 공모전 시상 및 발표’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회 행사는 ‘취업탐구활동 발표’와 ‘복면가왕’ 등 개인, 단체전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행사와 게임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 일문인의 밤, 전공수업 우수과제 시상 및 발표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어커뮤니케이션 트랙’, ‘일본문화콘텐츠 트랙’, ‘일본지역정보융합 트랙’으로 나누어 2021년 한 해 동안 전공수업 우수과제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지역문화학 서평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하였다. 그 중 ‘일본지역정보융합 트랙’에서 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이아영( )’, ‘김 선( )’의 인터뷰를 통해 준비 과정 등을 알아보고, 졸업 논문을 준비할 일문과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고한다.

우선 최우수상의 이 영 학우는 [반려동물을 통한 일본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가능성 연구 -펫 클럽 활동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일본 내의 지역 커뮤니티가 쇠퇴되고 있는 현상함에 새로운 형태로 반려동물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영 학우는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고령자와 우울증 환자 등 개인이 반려동물을 통해 얻는 만족감의 효과는 나타나 있지만, 반려동물을 통해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우수상의 김 선 학우는 [일본의 장례문화와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비교 분석 -반려동물 의인화와 의인화 너머-] 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 일본에서 다양화 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의 장례식에 중점을 두어 장례문화를 연구하였다. 특히 일본 내의 기존 장례문화가 반려동물 장례문화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문 내용을 일본의 지역문화학에도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만, 이번 논문 주제 선정을 한 것에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영: 전부터 이 상 교수님께서 졸업논문 주제를 정할 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정하라고 하셨던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반려동물이라는 테마는 정해두어서 동물권, 펫 산업 등 세부적인 주제를 정하는 데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취업 시에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일본만의 특징을 찾다가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는 분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모시고 있는 한 명의 집사로서 반려동물을 주제로 가져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본 문화, 산업, 미디어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다가 선택한 것이 장례문화였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주제를 좁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냥 재미있기만 한 주제는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연구 글을 써도 재미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 선정 시 따로 참고한 자료가 있나요?**

이 영: 아마 참고 자료는 다들 야후 재팬에서 찾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저는 바꾸기 전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을 발견하여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자료는 대학원생 선배님이었습니다. 인터넷 자료도 좋지만, 주변인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선: 학과 졸업논문집, 스콜라, 서적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졸업논문집에서는 선정 주제와, 글을 전개한 방법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스콜라에서는 관심이 있는 분야 단어를 입력한 뒤 조금이라도 연관된 논문이 나오면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논문을 찾고, 문제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조언을 드리자면, <생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박주용>은 캡스톤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입니다. 논리적인 글을 쓸 때 필요한 것들과 문제를 제기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려줍니다. 초고나 퇴고의 방식 등 짜임새 있는 글을 쓰기 위한 조언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직접 취재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셨나요?**

이아영: 제 주제의 ‘펫 클럽’은 일본 맨션 내에만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커뮤니티나 후기 분석을 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터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에 갈 수 없어 다양한 인터뷰는 어려웠지만, SNS에 키워드를 검색하여 관련인에게 약간 과장을 보태서 연락 100통은 보낸 것 같습니다. 답장이 안 오면 연구 진행이 불가능해서 노심초사하던 중, 친절한 분들이 답장을 꽤 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 거의 온라인자료에 의존했습니다. 원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외에는 근처 도서관이나 서점 등을 통해 읽었습니다. 정말 구하기 어려운 책은 담당 교수님께 양해를 구한 뒤 빌려와서 읽었습니다. 읽은 후에는 반드시 따로 요약, 정리한 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중에 참고문헌이나 정리할 때 엄청 힘들어요!

그 외로는 일본 사이트나 유튜브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야후 재팬을 이용하면 현지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일본어가 능통하지 않아서(웃음) 차마 전화, 메일 인터뷰 같은 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 시청각 자료를 번역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피드백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걸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졸업논문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의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 일단 주변인과 많이 대화하고 교수님도 많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도 좋고 선배도 좋고, 다들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니까요 :) 서로의 주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드백도 나누고 교수님의 귀중한 시간도 막 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최소 5번은 바뀌는 것 같으니 저처럼 하나에만 꽂히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재밌는 주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파이팅입니다.♡

김 선: 일본어를 잘 못 하는 저도 졸업논문 통과했습니다. 하하. 피드백 시간 전에 토할 것 같고 피곤함에 썰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일단 쓰세요. 일단 써야 뭐라도 쓸 수 있습니다. 이왕 쓰는 거 제발 자기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주제로 선택하시고요!

이번 행사의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의 상금이 부여되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문제와 사상, 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탐구하며 자신의 사고를 증진하는 것을 격려하는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도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을 갖춘 인천대학교 학생들을 양성하는 문화를 가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자세한 발표 내용은 일어일문학과 홈페이지 학생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너

## 비대면 축제와 새로운 도전

코로나 19의 확산이 반복되며 2학기를 마무리해가는 지금까지도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일문학과 학생회에서는 대면 행사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사용한 이색 행사를 기획하였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제1회 일문과 복면가왕’, ‘온라인 방탈출 게임’, ‘취업탐구활동 발표회’ 등이다. 취업탐구활동 발표회에서는 6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 팀의 학생들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조사하고 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며 비대면으로 이전과 다른 학교 생활에 어색해진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여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했다. 특히 복면가왕 행사는 휴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춤, 노래, 연기 등 다양한 분야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복면가왕 수상자인 일어일문학과 16학번 남 식 학우와 20학번 국 성 학우와의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 우리 "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최고의  
복면가왕을 찾아라!

1등 상금 13만?  
2등 상금 8만?  
3등 상금 5만?  
GO ▶

좋은 패럴 발산!  
ㅋㅋㅋㅋ대학

**신청** 2021. 10. 24 까지 영상 보내기

**종목** 춤, 노래, 연기 무엇이든 OK

**추첨** 댓글 참여시 추첨을 통한 선물!

- ✓ 매주 유튜브 라이브
- ✓ 누구나 참여 가능
- ✓ 투표로 우승자 선정
- 주점 이벤트
- ✓ 유학생 참여가능
- ✓ 일문과 최고의 여신 게스트

2021年 10月 28日 18.30 시작  
10/28, 11/1, 11/8, 11/18 진행

대회 참가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 식: 처음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이기에 고학번인 제가 낯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방청객으로서 행사를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학회장님에게 복면가왕 참여자가 생각보다는 적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여자가 부족하면 대회의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일어일문학과에는 17년도까지 연극부, 치어리딩, 밴드부와 같은 소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밴드부에서 보컬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자신도 있고, 보시는 분들께도 재미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 성: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휴학생 신분으로 학과 행사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기 전이라 일상이 지루했던 때에 휴학생도 참여 가능한 대회가 열려서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노래방 사용이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연습은 어떻게 하셨나요?

남 식: 복면가왕 참가를 위해 따로 연습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취미가 기타치고 노래하는 것이어서 집에서 혼자 자주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 성: 코로나 이후에 노래방도 잘 안 가게 되어서 촬영 때도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각 노래방들 역시 방역수칙에 맞게 관리를 잘 한 상태라 노래방 이용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평소에 음악 듣고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해서 특별히 연습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복면가왕 우승할 수 있다! 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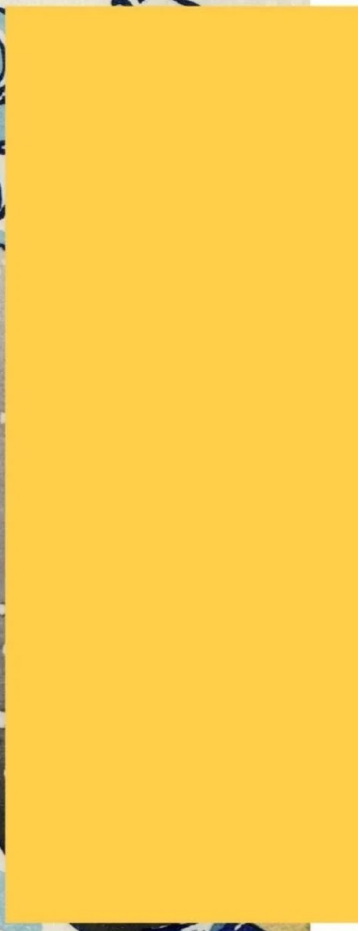
남 식: 저는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겠다는 당찬 신입생의 컨셉을 잡아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도 들려줄 수 있고,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도 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성: 저는 아쉽게 2등을 해서 “이렇게 하면 당신도 복면가왕 우승할 수 있다!” 에 대답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참가자들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도 같이 노래방 가보면 잘 부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신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승하고 싶다면 당신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라!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학생활의 큰 획을 차지하는 축제와 행사가 적어져 아쉬워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일어일문학과 학생회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늘어난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富嶽三十六景 神奈川沖  
浪裏

舟江島一景



# 2021 일본어 기초 강화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2021년이 끝나가는 12월, 겨울방학이 다가오지만 학업을 향한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의 열기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12월 중반에 접어들어 대부분의 2학기 수업이 종강할 시기에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1, 2학년 학생들의 일본어 학습 습관을 점검하고 운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일본어 기초 강화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코로나 이후 불투명한 한일관계 속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향후 학습 및 진로 방향을 제시하여 자기 계발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기사에 첨부된 사진 자료는 신진 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본 프로그램은 12.15부터 12.21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진행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LMS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줌(ZOOM)을 통한 화상 수업이 실시되었다. 약 50명 가량의 학생이 수강한 본 강의는 일어일문학과 신진 교수님께서 지도하셨다. 각기 다른 주제도 5번의 수업이 이루어졌고 수업마다 학생들에게는 해당 주제에 관련된 과제가 부과되었다. 본 기사에서는 5일간에 걸친 강의와 학생들에게 부여된 과제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학생들의 수강 소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한다.

## 1일 차. 일본어 공부 어떻게 할까?

강의에 앞서서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목표와 교과 과정, 학내 자원 활용 등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시간 관리 방법과 연습과 복습,  
노트 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번 겨울방학  
의 계획을, 장기적으로는 학교생활의 목표 설  
정과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평일과 주말, 방학을 구분하여 생  
활계획표를 작성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 일본어 악센트!

#### • 고저 악센트

- あめ 비      あめ 사탕
- はし 젓가락      はし 다리
- いっぱい 한잔      いっぱ이 가득
- にほん 두자루      にほん 일본

#### • 첫 박의 높낮이가 매우 중요!

- おはようございます。
- お茶 ごあいさつ

が

## 2일 차. 일본어 발음 클리닉과 쉐도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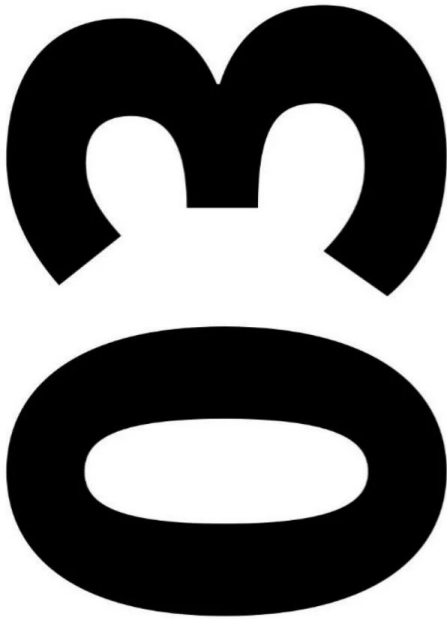
2일차에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초  
적인 소양으로 일본어 소리와 박자의 법칙, 음성  
학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마이크를 켜고 소리를  
내며 일본어의 높낮이와 발음을 연습하는 시간  
을 가졌다. 특히나 평소에 실수하기 쉬운 일본어  
의 고저나 모음탈락현상 등에 대하여 교수님께  
서 정리하신 자료를 보며 학생들이 직접 발음(쉐  
도잉)해보는 시간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

과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화, 애니, 노래 등  
에서 한 구절을 선택하여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  
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흔히 접하는 일본의  
영상 매체나 노래의 구절을 따라서 발음하는 쉐  
도잉 과정을 통해서 일본어 발음을 개선할 수 있  
음을 강조하였다.

### 3일 차. 일본 어학 분야의 이모저모

3일차에는 일본어 연구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코퍼스 빅데이터의 활용, 사회언어학과 일본어 교육 등을 설명하며 학생들이 통역과 번역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수업에서 제시된 일본어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유행어 등을 연구하면 언어가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일본의 유행어를 하나 찾아서 사용 예와 의미를 설명하는 과제가 부과되었다.



### 4일 차. 일본어 통번역 외 진로 진출

4일차에는 일본어 관련 취업 진로 현황과 장래 비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통번역 분야부터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진로 설계 과정에 대한 조언과 함께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취업탐구활동이나 STARinU 등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진로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과제는 본인의 취업 설계도를 구상하여 가상의 연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상일지라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 과제

주제	과제	종료 일시
1. [시각] 일본어공부 어떻게할까?	학교생활계획표	2021-12-22 00:00
2. [해보자] 일본어발음클리닉과 워딩	내가 좋아하는 OO	2021-12-22 00:00
3. [일본어로?] 일본어학분야 이모저모	유행어 신조어	2021-12-22 00:00
4. [뭐할까?] 일본어 통번역의 진로	취업설계도(가상연표)	2021-12-22 00:00
5. [어떻게?] 일본어조사연구방법	나의 관심사	2021-12-22 00:00

## 5일 차. 일본어를 조사 연구하는 방법

5일차에는 후에 졸업논문을 위하여 일본, 혹은 일본어와 관련된 연구를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주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과정부터 도표의 처리나 각주, 인용 방식 등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고 선행 연구를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문대학 433호실을 방문하면 일어일문학과 선배들의 졸업논문을 열람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방문할 것을 권장하였다.

마지막 과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진 주제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관심사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후에 연구할 방향에 대하여 고려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2/21 수업을 끝으로 총 5일 동안 진행된 2021 일본어 기초 강화 프로그램은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며 강좌를 진행한 신은진 교수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여러분들, 5일동안 저의 사랑이 담긴 잔소리를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학과 생활을 해나가고, 일본통(전문가)이 되는 데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학과에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

교수님의 시간과 노력으로 준비된 이 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일본어를 공부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논문 작성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 조사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였다.

본 프로그램 학생들이 이후에 학교 생활을 하고, 나아가서는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본 강의를 녹화한 영상은 LMS의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어 있어 필요한 학생들은 수강생에 한하여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수강생 인터뷰

본 프로그램을 수강한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학생들 중 현재 휴학 중임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문과 학생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Q. 현재 휴학 중으로 필수 수강 대상 (일어일문학과 1, 2학년 재학생)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학과 이름 변경 투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학과 교육과정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인문대학 진로 로드맵에 적합한 진로 트랙 등이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복학하기 전 새로운 학과 전공 트랙을 비롯해 학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 Q.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5일간의 강의 내용이나 과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의는 4, 5일 차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복학 후 진로에 대해서, 즉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본 강의의 과제로서 사소한 내 관심사부터, 짧은 미래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먼 훗날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정리한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원하는 분야, 직종, 최고로 목표하는 회사, 그 회사에서 구인하고 있는 직급 등을 정리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어렵풋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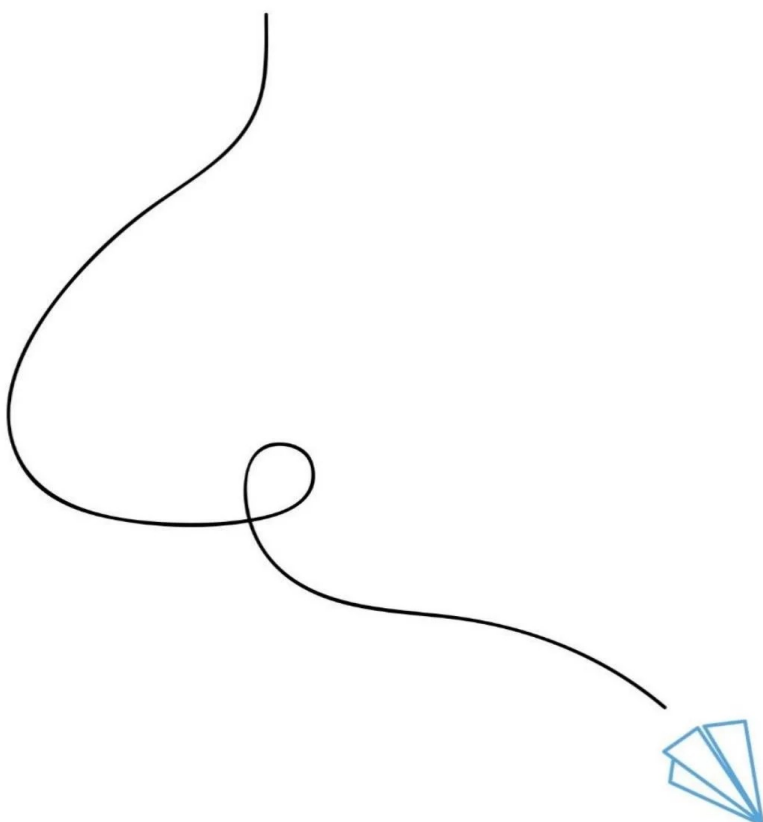
‘내가 좀 더 이런 활동을 빨리 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지금 생각해보면, 취업에 대해 현실을 알려주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여러 유용한 방법들을 소개해준 4, 5일 차 강의가 저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 Q.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

이번 프로그램의 명칭이 ‘일본어 기초 강화 프로그램’이어서 저도 처음에는 어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수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막상 프로그램 내용을 읽어보니 필요할 것 같아서 수강했는데, 아마 일본어 기초라는 이름만을 보고 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한번에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이었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Q.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한 전체적인 소감을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전 질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강의는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웨도윙 등 일본어를 실제로 몸에 익히는 학습법을 소개해주었고, 또 진로를 계획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의지가 있는 학부생이라면 본 강의에 소개된 일본어 학습법을 통해 어학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또 진로를 설계하며 정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 편집후기



상반기 소식지에 이어 두 번째 소식지가 게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지를 위해 힘써주신 코이 팀원 분들, 그리고 소식지 팀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번 최 영  
편집장



<아이>의 첫 발행에 이어 또 이렇게 자매지를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게 어색하고 처음 접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팀원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팀이지만,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이번 학기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풍성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문 학우분들께서 봐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모두들 늘 행복하세요.

학번 김 서  
편집팀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서브컬처 웹진 K OI 4기 기획부장이자 소식지 <아이> 고문, 김 건강입니다. 창간호에 첫 후기를 남긴 지 몇 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하반기라니,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아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쉽게 팀을 떠난 학우와 새로 들어온 학우, 그럼에도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탄탄해진 <아이>의 구성과 콘텐츠. 무엇보다 멤버가 중간에 바뀌었음에도, 편집장님을 중심으로 소식지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꾸준히 지속되었다는 점이 가장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창간호 <아이>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닐 암스트롱의 첫 발자국이라면, 이번 하반기 <아이>는 그 가능성을 함꼐 증명해낸 혼신의 결과물 그리고 이를 위해 함께 해 온 1년의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의 종지부를 찍고자 지금까지 달려온 편집장 최하영 학우님을 비롯한 아이 팀 모든 분들, 그리고 소식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이호상 교수님, 이석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KOI 모든 부원들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아이>라는 착륙선과 팀원들은 달에 도착한 뒤 두 번째 발자국을 찍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더 많은 발자취를 끊임없이 찍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주가 무궁무진하듯 <아이>의 가능성도 분명 무궁무진할 테니까요.

## 학번 김 강 편집인



2021년 하반기 아이 소식지 작업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서 단순히 교과목으로서 혹은 과제로서가 아니라 내가 흥미롭게 느끼는 것, 좋아하는 것을 통해 대상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즐거움을 알리고 싶습니다.

**학번 이 성**  
**편집팀**



다른 분들보다 늦게 합류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잘 가르쳐주신 아이 팀원 분들과 KOI 집행부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자매지를 제작하며 한 학기 동안 KOI의 활동과 일어일문학과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유익하고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학번 한 동**  
**편집팀**



# NEWSLETTER 逢



소식지 아이 2021년 하반기 호

통권 제 2호

발행일 2022년 1월 16일

발행처 KOI

편집장 최 영

편집인 김 강

표지 디자인 이 성

레이아웃 디자인 김 서 한 동

레이아웃 편집 김 서

홈페이지 [koi.inu.ac.kr](http://koi.inu.ac.kr)

이메일 [newsletteri2021@gmail.com](mailto:newsletteri2021@gmail.com)

소식지 아이는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소속 소모임 KOI의 소식지입니다.

소식지 아이에 실린 글과 그림의 저작권은 소식지 아이와 원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내지 전송 등 어떤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